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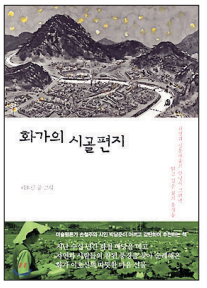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8.24~2015.8.3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추회요-종경록 활요본	혜당자심/원택	장경각	6	무아유희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2	신심명(물목개달음의노래)	해국스님	모과나무	7	공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3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8	담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4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9	감산자전	김신덕/대생	탐구사
5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유영년/김현호	효림	10	남을위해기도합니다	퇴옹성철	장경각



고요한 감탄 자아내는 생명의 풍경들 묘사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화가의 시골편지

이호신 글 그림
뜨란 펴냄
1만 4800원



'낙화', 한지에 수묵채색과 글씨

자연과 생명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30년간 순례의 붓길을 이어온 이호신 화백. 오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지리산 자락으로 화실을 옮긴 그가 귀촌 5년만에 시골편지를 보내왔다. 《화가의 시골편지》는 순례자에서 마을 주민으로 변신한 화가의 자연주의적 삶, 봄꽃부터 겨울나무까지 가까이서 함께하지 않으면 누리기 어려운 생생한 사계절 이야기, 눈길을 사로잡는 담백하고 생기 있는 그림들, 그리고 자연을 담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풍경이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16번의 개인전과 15권의 화문집을 펴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저자 이호신 화백은 나이 오십 중반에 가족과 떨어져 경남 산청 남사마을로 화실을 옮겼다. 몇백 년 묵은 매화나무와 감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수백 년 된 고택들과 문화 유산들이 가득한 작지만 유서 깊은 곳이다.

귀촌 전 이 화백은 화실 배란다 창문에 남창남창한 대나무들을 수묵으로 그려놓았다. 그리고 밤이면 이리저리 조명을 비추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 분위기를 연출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 화실 뒤란이 자연 그대로 온통 대숲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풍죽(風竹)이 되어 댓잎이 창문을 두드리고, 비오는 날은 우죽(雨竹)이 되어 어느덧 북을 들게 만든다. 정겨운 토담 옆에는 오랜 감나무가 서 있고, 지인들이 귀촌 선물로 보내준 꽃나무들이 화실 뜰에 사시사철 피고 지며 시골 생활의 정취를 더해준다.

그림농사 짓는 틈틈이 텃밭농사를 짓고, 자연을 통해 접하던 마음공부까지 하는 화가의 시골살이는 행복하다. 이 화백이 들려주는 나날의 풍경에 물들다 보면 우리가 현재 무엇을 잊고 사는지, 어떻게 해야 보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름의 해답을 찾게 된다. 이 땅의 산하를 순례하던 화가는 이제 화첩과 지필묵을 챙겨 봄이면 매향이 번지는 고택 마당을 서성이고, 여름이면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드는 남사천 독길을 산책한다. 또 가을에는 감잎이 떨어져 오색으로 물든 돌담길 사이를 거닐고, 겨울에는 서설이 내리는 회화나무를 찾아가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그렇게 화가의 화첩은 쌓여가고, 자

그림·마음농사 짓는 시골살이 담은 화문집 겸허한 성장 글 어우러진 사계절 순례 이야기 자연과 인문예술의 만남이 그려낸 삶의 풍경 담백한 생활 신수화 98점 수록한 지상 전시회

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정겨운 마을에서 1년 365일 또 다른 순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호신 화백의 귀촌 5년 세월이 담긴 《화가의 시골편지》는 인간과 자연, 생명에 대한 인문적 성찰이 빛나는 아름다운 화문집이다. 수백 년된 매화나무의 그윽한 암향을 화첩에 옮기면서 화가는 조선의 두 학자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긴다. 삶과 죽음이 겹쳐 있는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에 들어서서는 생명의 질서와 삶의 신비를 가르친 법정스님의 말씀도 떠올린다. 화실 뒤란의 대숲을 사생활 하면 대나무 사랑이 유발했던 소동파와 왕희지, 백거이의 시심과 철학이 중첩된다. 또한 600살 할배 감나무에게서 온갖 풍상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비위난 현자의 모습을 발견 한다.

벚꽃은 떨어져 흩날리는데 민들레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광경, 찬란한 시절 뒤로하고 흙빛으로 소멸해가는 겨울 연의 풍경을 사생활 때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마당을 점령한 잡초를 보고 황망해하던 중에 꽃나무만 선히하고 잡초는 뽑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 지난날의 편견과 분별심을 반성하는 시간도 있다. 떨어진 밤벌에 기생하는 벌레, 척박한 바위에 간신히 뿌리내려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선 소나무, 감나무 한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 애둘러 담장을 쌓은 마을 사람들의 어여쁜 마음은 화가에게 상상의 미학을 일깨운다. 그밖에도 백로, 후투티, 물까치, 제비, 반달가슴곰 같은 동물들과 회화나무, 느티나무, 진달래, 배롱나무, 목화, 산국 같은 식물들, 교묘한 달빛과 눈부신 별빛,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텃밭의 가을걷이... 등등. 단아하고 기품 있게 묘사된 생명의 풍경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보다 충만하고 행복히 살 수 있는 지혜를 지속해 들려준다.

"우리 산하를 그리는 일이 비단 산천에 대한 예찬과 경의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산과 강이, 논과 들이 품고 있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 우리네 소소한 삶의 숨결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그림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담은 '생활신수화' 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산하의 소소하고 눈부신 생명들과 교감해 완성한 그림 98점이 실려 있다. 생활신수화로 총칭되는 이들 작품에는 작지만 온전한 우주를 품고 있는 꽃과 나무, 새와 곤충 등 자연의 세계와 날마다 마을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 체득한 삶의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쉰다. 한편 무수한 생명들이 별처럼 빛나는 우포늪의 풍광, 4대강이 훼손되기 전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순례하며 강 의 원형을 화폭에 담은 대작들도 수록돼 있다.

화가는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필묵은 청담하며 필치는 담백하고 생기 있다. 탁본과 목판기법은 물론 수묵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선명한 색채와 염색한지, 한글과 그림을 접목시킨 '한글 뜻그림' 등 창의적인 기법들도 응용한다.

이호신 화백의 그림은, 화업을 시작한 이래 전국 구석구석을 두 발로 걸어다니며 산천초목을 살살이 살피고 현장서 사생해 완성한 예술작품이자 이 땅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 담긴 고귀한 기록 그 자체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길 위의 화가가 걸어온 감동적인 그림순례에 동참하는 특별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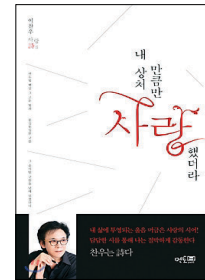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저자 이호신은?

크게 보되 작게 살피고, 작은 것 속에 큰 뜻이 담겨 있음'을 되새기며 자연과 생태, 소중한 문화유산, 정겨운 마을 등을 한국적 정서로 표현한 그림들을 꾸준히 발표했다. 한국 진경산수화의 전통을 창신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다채로운 색채를 응용하여 '생활신수화'라는 독자적인 장르와 화풍을 추구해왔다.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함께 지닌 이호신은 지금까지 1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대영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저서로는 《지리산전경》(가림장경) 《산형에서 띄우는 그림 편지》(우리 마을 그림 순례) 《그리운 이웃은 마음에 산다》(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숨을 그리는 마음》 등이 있다.

“절망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보인다”



내 상처만큼만 사랑했더라

이찬우 지음
멘트프레스 펴냄
1만 1천원

문단을 통해 꼭 데뷔 해야 시인일까? “2008년부터는 죽어라 시를 써서 천편의 시가 있다. 신춘문예는 나를 거절했고 잡지사는 내가 거절해서 문단을 안 했다. 그래도 지인들은 시인이라고 부른다”고 당당히 밝힌 이찬우 시인(51). 수 년 동안 10여 개 밴드와 카스 등을 통해 시를 올리면서 30대서 70대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는 이 시인은 스마트폰에 올린 그간의 시를 매개로 낯선 이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실 토한다. 또한 이 시인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이론을 곁집어내며 자신의 시에 대해 언급한다. “아들러 심리학의 진수는 바로 트라우마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다. 경험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질곡의 세월 속에 요령없는 삶을 체득했던 나는 달콤한 사과꽃 향기가 아닌 육화된 사과향을 지속에 담아내고 있다.”

보다 인간다운 세상, 고달픈 하루를 마친 사람들에게 어느 날은 ‘육신거리 는 상처들을 꽃으로 피워내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별 선물 드릴까요/ 오늘 밤은 별 달로 바쁘겠네요’

이렇게 《별 배달》이란 시를 선사하고, 단지 시를 쓰기 위함이 아닌, 읽음으로써 즐기는 시를 짓고자 할 때에도 두 눈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아름답음, 행복을 찾고자 하는 시인의 갈망이 어느 날은 의정부 중앙천에서 합박눈이 수제비로 변신하는 기적을 낳기도 한다.

그는 한때 주식투자자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고 정수기영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수년간 중앙아시아 사업을 강행하다 실패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그리고 갑자기 절친이 죽자 충격 받고 한때 정신병원에 근무하기도 한다. 이때 쓴 시들이 시집 본문 ‘파트5 너의 존재를 깨달았다’에 다수 실려 있다. 구체적으로 《우화등선》 시에는 살기 위해 죽는, 죽어야 사는 절체절명 속에 놓인 시인의 비애감이 생생히 전해온다.

“구절구절한 세상/ 출구조차 닫는 다/ 날 선 세상/ 둥글고 하얗게 마감한

다/죽어야 살기에/ 죽어야 날개를 갖기에/ 고통 속으로/ 환생 속으로”

〈우화등선〉중에서

또한 그의 첫 시집 《내 상처만큼만 사랑했더라》 말미에는 평소 이 시인의 시를 즐겼던 18명 지인들의 서평을 실고 있다. 서평자 중 장미연씨는 “찬우는 시다”라며 극찬하기도 하고 김재승씨는 “그의 삶이, 시인의 시어들이, 내 삶에 투영되는 것 같다. 지천명을 넘겨 살아온 이의 온기가 전해오는 것일까. 날을 세워 달려드는 삶에 대한 애뜻함이 절절하다”며 이찬우 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절망이 내 삶의 대부분일 때부터 진정한 친구와 사랑이 보이고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시는 아플수록

10여개 밴드 통해 읊려

사업실패 등 인생 고백 녹아내

18명 지인의 서평도 실어

나오려고 많은 고통이 필요했다”고 토로하는 이찬우 시인. 그는 오늘도 의정부 한 귀퉁이에서 해석하고 분석해야 이해되는 시가 아닌, 단지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려지고 만져지고 독자를 즐겁게 하는 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찬우 시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백복금 시낭송가는 “이따금씩 손끝으로 전해오는 그의 이야기에는 바람, 꽃, 비, 하늘, 바다, 사람 마음이 담백 배어 있었다. 바짝 몸을 당겨 읽고 있노라 하면 어느새 나에게서 그것들의 흔적이 묻어나기도 했다.”고 말한다.

김재승 온라인종합경제신문 뉴스필 온라인국장도 “이찬우 시인의 시어들은 낮은 울음을 머금고 있다. 그렇다고 일상의 니힐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회한이, 애뜻함이 엿보인다. 그의 삶이, 시인의 시어들이 내 삶에 투영되는 것 같다. 지천명을 넘겨 살아온 이의 온기가 전해오는 것일까. 날을 세워 달려드는 삶에 대한 애뜻함이 절절하다.”고 평한다.

김주일 기자

300질 한정판 예약

《벽암록》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안집 《종용록(從容錄)》역주·해설판(전 5권)

천동정각(天童正覺) 송고(頌古) / 만송행수(萬松行秀) 평창(評唱)
석지현 역주·해설(벽암록 역주·해설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과 더불어 선가(禪家)의 필독서! 선종의 공안 송고 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

이 종용록은 원문을 수록하고 현토·완역했으며, 또한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석을 달았고,

《종용록 어휘사전》까지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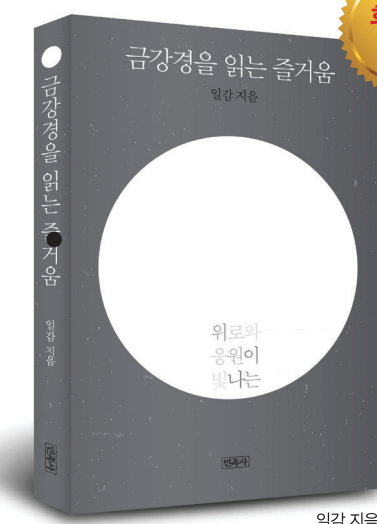
《종용록 어휘사전》은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해설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 한 권만 있어도 선어록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주·해설자는 《벽암록 전 5권 값 145,000원》을 역주·해설한 석지현 스님으로 번역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 ▶ 출간일 9월 30일 / 배본일 10월 5일부터 배본
- ▶ 예약: 민족사 02-732-2403~4
- ▶ 하드카바 / 각권 400~450쪽 어휘사전 198쪽
- ▶ 예약금: 65,000원
- ▶ 정가: 전 5권 값 165,000원
- ▶ 송금은행: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뉘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화제의 신간

일감 지음 115,000원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망 조상님과 용맹 정진하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백중날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법보시 하시면 크나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